

# 윤석열, 선대위 전면 해산... 새 선대본부장에 권영세

“선대위 잘못된 부분 바로잡을 것  
웬만한 본부 ‘단’으로 축소돼  
이준석 대표 거취문제, 소관 밖”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장고를 끝내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해산하고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주도의 선대위 새신은 결국 국 불발됐고, 신임 선대본부장에 4선의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다.

윤석열 후보는 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분여의 짧은 입장 발표를 통해 사과했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 위기의 책임이 자신에 있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후보는 “많은 국민이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걱정하고 있다”며 “선대위와 당을 잘 이끌어 국민에게 안심을 줘야 했는데, 모두 후보인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가족과 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장고를 끝내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해산하고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련한 문제라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의 부족에 대해 국민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경력 위주의 흑에 대해서도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계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향후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나눠 먹기 식’ 조직 구성이 아니라 능력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기용해 선대본을 끌고 나가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고 불린 측근

들이 선거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막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메머드라 불렀고,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선대위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다”며 “철저한 실무형 본부를 구성해 실력 있는 젊은 본부를 끌고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의 구성과 인사발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제게 시간을 좀 내 달라”며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선대위 조직 구성을 묻는 질문에 “선대위와 산하 본부를 전부 해체하고 선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슬림하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며 “웬만한 본부는 ‘단’으로 축소돼 선대본 산하에서 일하고 정책 본부는 별도로 존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 이외의 인사구성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봤으나, 오후 늦게까지 여러 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정

리해서 발표는 내일(6일) 중으로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이라며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한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대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3회의 법정 토론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캠프 실무진에게 법정 토론 이외에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을 배제한 선대위 전면 개편이 추진되면서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영입된 정태근 정무대응실장,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김근식 정세분석실장도 선대위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WHO “오미크론, 감염 빠르지만 중증·사망률 적어”

“호흡기 상부 감염... 디커플링 현상  
코로나 백신,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이전 변이들에 비해 증상이 가볍다는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압디 마하무드 WHO 코로나19 사물관리자는 “심각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변이와 달리 오미크론 변이가 호흡기 상부를 감염시킨다는 연구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며 “급증하는 환자 수와 낮은

사망률 사이에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 11월 처음 발견된 이후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현재 128개국에서 발견됐다. 역대 변이들에 비해 확진자 수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입원 및 사망률은 대유행의 다른 단계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

마하무드의 발언은 오마이크론이 처음으로 검출된 국가 중 하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 등 다른 데이터와 일치하는 결과다.

그러나 그는 남아공 인구에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염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오미크론이 높은 전염성을 갖고 있어 많은 지역에서 몇 주 안에 유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높은 비율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료 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하무드는 “오미크론이 백신 항체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일부를 보호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에 의한 입원과 사망을 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달걀을 바구니에 담으면 전염성이 더 높거나 면역력이 더 뛰어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수 있다”며



화이자 백신 /뉴스1

“변종의 영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 국가에서 3, 4번째 접종을 제공하는 것보다 7월까지 각 나라 인구의 70%를 예방접종하겠다는 WHO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 현대차그룹, 작년 美시장 역대최다 판매

현대차·기아·제네시스 합산  
총 149만대 판매... 21.6% ↑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악재속에서 이뤄낸 결과라 의미가 남다르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지난해 미국시장에 148만9118대의 차량을 판매, 전년 대비 21.6%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이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141만5655대)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합산 실적은 78만7702대로 전년 보다 23.3% 증가했다. 제네시스를 제외하면 현대차는 73만8081대를 팔아 2016년, 2015년에 이어 역대 3위 판매 실적을 냈다.

같은 기간 기아는 미국 시장 판매량이 70만1416대로 전년 대비 19.7% 급증

했다. 기아가 미국에서 연 70만대 판매를 넘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제네시스도 작년 미국에서만 4만9621대를 팔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전년 대비 증가는 202.9%에 달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주역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을 포함한 레저용 차량(RV)이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RV 판매 대수는 50만9957대로 전체 판매의 64.7%에 달했다. 기아의 RV 판매도 44만7932대로 전체 판매량 가운데 63.9%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투싼(15만949대), 이반떼(12만3775대), 쏘나타(11만2071대) 순으로 판매량이 많았다. 제네시스는 GV80 2만311대, GV70 1만740대, G70 1만718대가 각각 판매됐다. 기아는 K3(11만5929대), 스포티지(9만4601대), 텔루라이드(9만3705대) 순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RV 차종의 판매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